

##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하 늘<sup>1)</sup> 김소연<sup>1)</sup> 홍현기<sup>2)</sup> 손연주<sup>1)</sup> 김기평<sup>2)</sup> 현명호<sup>1)</sup>  
중앙대학교<sup>1)</sup> 국립과학수사연구원<sup>2)</sup>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생활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성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성인 및 청소년과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지닌 취약 대상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체 성범죄 피해경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성용 도구를 만들고자 여성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척도 개발 과정에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요소를 개인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과 상황지각 및 대처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고,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청소년기에 형성된다는 관점에 따라 940명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1과 연구 2를 실시하였다. 문항 확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자기보고식 질문 영역에서는 성지식 13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의 2요인으로 이루어진 22문항을 확정하였고, 구체적인 성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상황지각과 상황대처 능력을 파악하고자 상황판단형 5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20문항을 도출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각 척도는 양호하거나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과 시나리오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 개발, 예비연구

\*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주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FS2018PSY02).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305관 905호  
Tel : 02-820-5125, E-mail : hyunmh@cau.ac.kr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투(#MeToo)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고, 자신의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불법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새롭게 조명을 받으며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이얼, 김성돈, 2010). 더하여 가부장적인 위계를 강조하던 기존 시각에서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고려한 판례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을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여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2018년 9월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하여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고, 여성을 독자적 인격과 책임 능력을 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여성 인권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고려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

하여 쟁점 사안에 적용하거나 판결 근거로서 선고에 명시한 경우는 드물다. 그 예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를 무죄 취지로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서신의 내용, 형식 즉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잠’(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판결, 2014도9288)을 든 판결은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1)</sup>. 이밖에도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 판결에서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나 신체조절능력’을 고려하거나(2004년 5월 27일 대법원 판결, 2004도1449) 이전의 ‘정신질환 병력 또는 언어 표현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여부를 판별하기도 하였다(2011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 2011도6907).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법관에 따라 고려하는 요소가 각기 다르고, 현재까지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도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행위에서 판단과 결정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있어서도 범죄 여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범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법리적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87.5% 이상이 여성으로 보고되었고(대검찰청, 2019), 아동·청소년이나 지적장애 혹은 정신장애인과 같이

1)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의미와 쟁점 토론회”, 2017년 12월 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더욱이 13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나 정신장애를 지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객관적 도구와 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일정한 원칙과 근거를 부여해주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동의 능력(sexual consent capacity)’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적 동의 능력 평가의 기본 원칙은 지식, 합리성, 자발성에 대한 것으로(Lyden, 2007), 성적 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성지식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성지식은 육체적인 성관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병과 임신, 성행위의 도덕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지각 및 인지적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합리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는 개인의 지남력과 현실검증력,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에 관련된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Stavis & Walker-Hirsch, 1999). 마지막으로 성행위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발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성행위에 대해 거절이나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기꺼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고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심리학을 비롯한 여성학, 간호학, 사회학 등 다학문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적인 상황과 맥락,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해왔고, 대표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서의 성적 자기주장(박선미, 송원영, 2012; 정춘아, 주용국, 2017)과 성 의사소통(전송이, 2017; 최영임, 장희숙, 2006), 성태도와 성행동(채규만, 정민철, 2004; 김혜원, 2003)에 관한 연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되는 폭력 상황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통해 일상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이은진, 2015). 하지만 학계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포괄할만한 심리학 연구는 드문 데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내·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성적 동의와 성적 자기주장, 성적 의사결정 등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는 다수 존재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 않다. 각 척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앞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슷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연구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성적 동의는 성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정의되며(Hickman & Muehlenhard, 1999), 보통 합법적 성행위의 지표가 되므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표 1.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관련된 측정 도구

측정 도구	연구자	하위 요인	문항수
성관계 동의 척도(CSS)	Jozkowski & Peterson (2014)	비언어적 신호, 수동적 행동, 언어적 단서, 시작행동, 제거행동	44
개정판 성적 동의 척도(SCS-R)	Humphreys & Brousseau (2010)	지각된 행동 통제, 동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적동의 기준, 간접적 동의행동, 지각	39
성적 자기주장 척도(SAS)	Morokoff et al. (1997)	성행동의 개시, 거절, 임신 및 성병 예방	18
성적 자기주장 질문지(SAQ)	Loshek & Terrell (2015)	원하는 성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거절, 과거 성경험과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	18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	이지연, 이은설 (2006)	성행동의 시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임신 혹은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의사소통기술	21
대학생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	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수용·표현	18
성적 의사결정 척도	선미경, 이도균, 조경덕 (2019)	성적가치관, 성행동, 성적의사표현, 성적 의사결정	38
성적 자율성 도구	장순복 (2002)	조절, 대응	13
성동기 척도	송은주, 김지현 (2017)	친밀감, 성적욕구, 매력확인, 부정적 감정 대처, 파트너 붙잡기	22
성적 자기결정 척도 <sup>2)</sup>	한국여성민우회 (2001)	-	20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박영숙 (2001)	성태도, 성충동성, 성대처행동, 성지식	75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박영숙, 전영민 (2002)	성태도, 성충동성, 성지식	87

이 중 성관계 동의 척도(the Consent to Sex Scale: CSS)는 성적인 동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비언어적 방식(비언어적 신호, 수동적 행동)과 언어적 방식(언어적 단서, 시작행동)으로 세분화하여 동의여부를 평가한다. 개정판 성적 동의 척도(the Sexual Consent Scale-Revised: SCS-R)는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태도, 행동을 통하여 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개인이 성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2) 한국여성민우회(2001)가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 척도는 현재 한양대, 삼육대, 충북대를 비롯한 대학상담센터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학술형태로 개발되고 보고된 척도가 아니어서 참고문헌에 실지 못하였음.

Scale: SAS)으로써 여성의 성적 의사결정과 자기 주장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다양한 버전으로 번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 질문지(Sexual Assertiveness Questionnaire: SAQ)는 성관계와 관련된 자기주장과 과거의 성경험과 위험관련 요인에 대한 의사소통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국내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이나 의사소통, 동기 등의 영역에 국외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거나 타당화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 상황과 문화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몇몇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는 해외의 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성행동의 시도와 거부, 임신이나 질병의 예방에 더해 의사소통 기술 요인을 추가하여 개발되었고, 대학생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기존 척도와 달리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적 의사결정 척도는 성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성적 자율성 도구는 대학생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를 규명하고 행위결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조절과 대응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성동기 척도는 Cooper 등(1998)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개인의 성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이밖에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구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 척도가 있으나, 검사 개발 과정에 대한 보고와 결과 해석에서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사안

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응답 대상 역시 일반 성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심리검사는 발달연령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중학생용 75개, 고등학생용 87개로 문항 수가 비교적 많은데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 도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진단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하기 힘든 아동·청소년이나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지닌 성인은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특정 사건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피해에 재회생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김재운, 2009). 더욱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 상황에서의 성적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 있기에(손강숙, 정소미, 2016) 성적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의사결정 및 자기주장 척도는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 또래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나 성인,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인과 같이 취약 대상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드물다.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를 사용한 최종순(2016)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척도를 활용한 것이어서 척도 개발과정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기존 척도는 미성년자 혹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이 종종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율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에 적절한 인지와 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박광배, 2000). 나아가 상황의 특수성과 사건 이전에 형성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 척도 대부분은 자기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판단 및 대처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쟁점을 통합하여 연령에 비해 미숙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 및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개념을 도출한 뒤 초기문항을 제작하였고,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절차를 통하여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1에서 문항 분석 및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쳤고, 연구 2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고 구인타당도와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성요소를 포괄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수사 및 교육과정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여학생 728명의 응답을 온라인으로 수집하였고, 오프라인 조사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여학생 212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총 94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온라인 참여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정 크레딧을, 오프라인 참여자는 소정의 학용품을 참여의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연구 1과 연구 2에 각각 기술하였다.

### 연구 절차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는 총 4단계에 걸쳐 문항을 개발하였다. 1단계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구성개념을 밝히고, 관련 척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척도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2단계 예비문항 구성 단계에서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의하였다<sup>3)</sup>. 해당 심포지

3) 한국임상심리학회 법 심리평가 및 치료연구회 (2018). 심포지엄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 성적 자기결정권'  
 김성천, "법률적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신기숙, "심리학적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중심으로"

업에서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해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광의 및 협의의 정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구성개념을 정의하고, 개인의 심리적 속성 및 환경,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요하게 논의하였다. 특히, 문제해결 및 상황판단 능력을 포괄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대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양한 척도와 질문방식을 도입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3단계 척도 개발 및 조사 단계에서는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로 간주되는 청소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4단계는 통계 분석 및 검증 단계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표집된 참가자를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연구 2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와 시나리오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성지식 척도의 문항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살피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구인타당도 검증절차를 거쳤다. 각 단계별 세부 진행사항은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한경미,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 연구 1

연구 1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개념 논의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로 개발된 예비문항은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일부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후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문항 구조를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의 구성개념

기존 척도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적 자기결정능력은 기본적인 성에 대한 지식과 적절한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그리고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한 자기주장과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특정 성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합리적 사고 및 이해력, 상황지각과 대처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최종 구성개념에 포함시켰다.

### 성지식

성지식은 개인이 성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정보와 개념으로, 남녀 신체의 차이와 생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 및 출산, 피임 방법, 성에 대한 통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올바른 성지식은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주체적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성 의식 및 성 태도

성 의식이란 성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 감정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Reiss(1964)는 성 의식이 이성교제 의식, 순결 의식, 성충동 조절, 성폭력 의식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최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이해하면, 보통 성 의식이 높다는 것은 건강한 성적교제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을 지니며, 더불어 성충동에 대한 조절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태도는 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 행동 등으로 이해된다. 성 태도는 성 지식이나 과거의 성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되며, 성 행동이나 개인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왜곡되고 비윤리적인 성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반면 성 태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적절한 윤리성을 지니고 개방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 성적 자기 주장

성적 자기 주장은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이다. 이는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이선경, 이윤정, 2018) 성적 자기 결정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성적 상황 지각 및 상황 대처

본 연구 과정 중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더하여 옥도진(2018)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논하면

서 성 관계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유효한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기 보고식 질문뿐만 아니라, 실제 성적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성적 상황에서의 지각과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형식을 추가하였다. 해당 구성개념은 인권감수성 지표(문용린, 문미희, 곽윤정, 김민강, 유경재, 2002)의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의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 및 논의 절차를 거친 결과,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상황 인식과 대처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황 지각'과 '상황 대처'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성적 상황 지각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더불어 상황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다. 상황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각하고,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적 상황 대처는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적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 대처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인식하고 선택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특정 행동이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여성용 성적 자기 결정 능력 척도 개발 과정

#### 1차 자기 보고식 척도 개발

자기 보고식 질문지 예비 문항의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성지식, 성의식 및 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세 영역에 각각 40문항씩 총 120문항을 제작하였다. 해당 문항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교육 워크북(교육부, 2017)과 기존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척도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문항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 특정 영역과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념의 부합 정도를 고려하였고, 척도의 주요 사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성인 및 경도의 지적장애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1차 예비문항은 토의를 통하여 1차 수정 및 삭제 절차를 거쳤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거리가 멀거나 부합하지 않은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영역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개념을 묻는 문항은 삭제하거나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애매하거나 민감한 표현은 삭제 또는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성지식 23문항, 성의식 및 태도 23문항, 성적 자기주장 21문항으로 1차 척도가 구성되었다. 성지식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의 이분형 문항으로, 성의식 및 태도와 성적 자기주장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 1차 시나리오 척도 개발

사건에 대한 상황지각 및 대처능력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 형태를 사용하는 대신 상황판단형 시나리오 형식을 도입하여 특정 성범죄 피해에서 개인의 상황지각과 대처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체 문항의 형식은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연구(문용린 등, 2002)를 참고하였다.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연구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나누어 각 요소마다 인권과 부합하는 진술문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문의 두 상황을 제시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를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에 적용해보면, ‘상황지각’은 다양한 성적 상황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고, ‘결과지각’은 성행위의 결과 및 위험을 예측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지각’은 성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나리오 내용은 우리나라의 실제 판례와 교육부의 성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척도의 형식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다룬 시나리오 척도(김은지, 박지선, 201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초기 문항은 9개의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별 6문항의 총 54문항으로 제작되었다.

표 2. 척도 개발 초기과정

1차 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피드백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결과 반영 수정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지식 23문항</li> <li>· 성의식 및 성태도 23문항</li> <li>· 성적 자기주장 21문항</li> <li>· 시나리오 12개, 시나리오별 하위 4문항, 총 48문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지식 8문항 삭제</li> <li>· 성의식 및 성태도 7문항 삭제</li> <li>· 성적 자기주장 7문항 삭제</li> <li>· 시나리오 5개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지식 15문항</li> <li>· 성의식 및 성태도 16문항</li> <li>· 성적 자기주장 14문항</li> <li>· 시나리오 7개, 하위 4문항 총 28문항</li> </ul>

시나리오 초기 문항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결과지각' 영역은 앞서 제작된 '성지식' 영역에서 일부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자 삭제하였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마다 '상황지각'과 '책임지각'에 대한 긍정진술문과 부정진술문의 2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수정·제작하였다. 또한 문항의 마지막 요소인 책임지각은 본 척도 개발의 방향성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상황대처'로 변경하였다. 더하여 다양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3개를 추가하여 12개의 시나리오와 하위문항 4개, 총 48문항을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씨만 표기하고 나머지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1차 시나리오 척도는 앞선 과정을 거쳐 성추행 관련 상황 6개와 성폭행 관련 상황 6개로 구성된 12개로 확정하였다. 개별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지각 2문항과 상황대처 2문항을 포함하며, 영역 내 문항은 다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는 문항(긍정진술문) 1개와 거리가 먼 문항(부정진술문) 1개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동의한다

(5점)'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중 하나를 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내용타당도 검증

척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1차로 작성된 예비문항의 적절성과 적절성, 문항의 간결성과 검사 목적의 일치성 및 대상자의 이해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 상담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성폭력 피해관련 전문가 1인, 장애인 성폭력관련 전문가 1인 및 수사기관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인이었다.

전문가 6인은 연구의 목적과 본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개념, 개발 이후 주요하게 사용될 대상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문항 주요 내용의 적절성과 대표성, 문항 난이도를 평가한 후, 각 문항에 대해 총평(사용 가능, 수정 후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중 택 1)을 내리고 내용에 대한 제안과 기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취합하여 전문가 6인 중 3인 이상

표 3. 시나리오 척도의 예시

구분	문항 예시
시나리오 1	양씨는 학원 교사로 평소 아이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었다. 양씨는 아이들을 자주 칭찬해 주었으며 “예쁘다”고 자주 말로 표현하는 편이었다. 하루는 둘만 있는 교실에서 양씨가 허균을 무릎에 앉힌 후 “착하다, 예쁘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졌다. 당시 허균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
상황지각	1-1. 양씨의 행동은 칭찬이 아니라 성추행에 속한다. 1-2. 양씨는 평소 착한 선생님이었으므로 잘못된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상황대처	2-1. 양씨에게 싫다고 말하고 교실에서 나온다. 2-2. 양씨가 민망해 할 수 있으므로 가만히 있다.

이 적절성에 대해 '사용 불가'로 평가한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1인이라도 '사용 불가'로 평가한 문항은 내용 수정을 검토하였다. 응답 대상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지식 8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 7문항, 성적 자기주장 7문항이 삭제되었고, 나머지 문항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문항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시나리오의 경우 주요 구성개념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5개의 시나리오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성지식 15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 16문항, 성적 자기주장 14문항과 시나리오 7개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시나리오는 성추행, 성폭행, 강간미수 유형에서 각 2개씩, 성희롱 1개로 구성되어 개인이 응답하는 시나리오는 총 7개로 변경되었다.

#### 안면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수정된 문항을 청소년(중학생 23명, 고등학생 16명, 총 39명)에게 실시하여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실제 반응 및 소요 시간을 확인하며, 척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전반적인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대상자에게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장이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문항,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항에 표시하도록 한 후 설문지 회수 과정에서 종합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성지식 1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 3문항, 성적 자기주장 4문항, 시나리오 2문항에 대한 의견이 보고되었다. 이중 성의식 및 성

태도 3문항과 시나리오 2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성지식 1문항은 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기존 문항 내용을 유지하였다. 성적 자기주장의 경우 "성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영역에서 "성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 연구 대상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설문 소요 시간은 총 20분 정도였다. 모집된 전체 대상자 94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의 자료를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5.97세(SD=1.48)로, 중학생이 215명(45.7%), 고등학생이 255명(54.3%)이었다.

#### 자료 분석

분석에는 SPSS 25.0과 Mplus 7.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된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척도를 통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도출된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 30개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

정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영역의

표 4. 성적 자기결정능력 자기보고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 항	1	2
요인 1 : 정의식 및 성태도		
1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0.773	
2 여성은 남성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R)	0.504	
3 성과 관련된 행동은 모두 나쁜 것이다. (R)	0.781	
4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0.775	
8 성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0.471	
9 원하지 않는 성행동은 거절해야 한다.	0.523	
10 성관계는 남성이 리드하는 것이다. (R)	0.435	
13 누구든 나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제로 시켜선 안 된다.	0.611	
14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0.719	
15 성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하고 부끄럽다. (R)	0.492	
16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피임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0.544	
22 나의 성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0.464	
요인 2 : 성적 자기주장		
18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면 성적인 행동을 한다. (R)		0.760
19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성적인 행동을 거절하기 어렵다. (R)		0.846
21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묻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된다. (R)		0.551
23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절한다.		0.675
24 싫다고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성적 접촉을 원한다면 자리를 피한다.		0.556
25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R)		0.857
27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 나와서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다. (R)		0.843
28 윗사람(예, 선생님, 선배 등)이 원치않는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0.681
29 사랑하는 사이라도 강요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는 거부할 수 있다.		0.740
30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가 성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이다. (R)		0.482
Cronbach's Alpha	.789	.816
Eigen value	12.270	2752
% Total variance explained	24.614	32.978

주. (R): 역채점 문항

과, 각각  $KMO=.906(p=.000)$ ,  $\chi^2(435)=4039.1$  ( $p=.000$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문항 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있는 구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추정모형과 Oblimin 방식의 사각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6개로 나타났으나 스크리 도표(scree plot)와 요인 간 상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2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문항 선택 기준으로는 선행연구에 따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40 이하인 경우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고(11, 20번), 한 요인에 최소 4문항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문항에 두 개 이상의 요인이 동시 부하되었을 경우 그 부하량의 차이값이 .10 이하인 4개 문항(5, 6, 7, 12번)을 삭제하였다(김영애, 최주연, 최윤경, 2016). 추가로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3 미만인 문항(17, 26번)은 전체 신뢰도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총 8문항(5, 6, 7, 11, 12, 17, 20, 26번)이 삭제되었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32.928%였다. 요인 구성은 기존 개발 의도와 대부분 일치하여, 요인 1은 12문항으로 성의식 및 성태도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10문항으로 성적 자기주장으로 명명하였다.

####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 22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789, 요인 2는 .816, 전체 .852의 신뢰도가 도출되었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지식 문항의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나리오 문항의 요인구조와 연구 1의 자기보고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대상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설문 소요 시간은 총 20분 정도였다. 모집된 전체 대상자 940명 중 연구 1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의 자료를 연구 2에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6.03세( $SD=1.50$ )로, 중학생이 218명(46.4%), 고등학생이 252명(53.6%)이었다.

#### 자료 분석

분석에는 SPSS 25.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분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지식 문항은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앞서 수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모형의 타당화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나리오 척도의 적합도 지수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척도 간의 상관 분석과 전체 점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성지식 문항분석

성지식 질문지는 ‘그렇다’ 1점, ‘아니다’, ‘모르겠다’ 0점으로 채점되는 이분형 문항으로서, 난이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항의 난이도는 특정 문항의 정답을 맞힌 사람의 비율로, 전체 15문항의 난이도는 그 범위가 37.2~98.9%였다. 이 중 정답 비율이 낮고 문장이 모호하여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은 1번(성관계를 하면 언제든지 임신이 될 수 있다. 정답률 43.2%), 15번 문항(성병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옮는다. 정답률 37.2%)을 삭제하여 최종 13문항으로 문항을 확정하였다. 성지식 질문지 최종 13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87로 나타났다.

### 확인적 요인분석

#### 자기보고식 척도(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연구 1에서 시행된 자기보고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2요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증과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s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RMSEA값이 .079, CFI값은 .917, TLI값은 .908로 나타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Hu & Bentler, 1995). 또한 최종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85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자기보고식 척도는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2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22~11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 시나리오 척도

시나리오 문항의 경우, 성적 상황지각 및 상황대처라는 2요인을 가정하고 따로 문항을 분리하였기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치지 않고 2요인 모형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시나리오 문항의 적합도 지수는 표 6과 같다.

표 5. 자기보고식 리커트 문항의 적합도 지수

$\chi^2$	df	RMSEA (90% CI)	CFI	TLI
813.487***	208	.079 (.073~.084)	.917	.908

\*\*\* $p < .001$ .

표 6. 시나리오 문항의 적합도 지수

$\chi^2$	df	RMSEA (90% CI)	CFI	TLI
1312.888***	349	.077 (.072~.081)	.954	.950

\*\*\* $p < .001$ .

표 7. 시나리오 상황지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시나리오 1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시나리오 7	
1-1	1-2	1-1	1-2	1-1	1-2	1-1	1-2	1-1	1-2
0.730	0.764	0.845	0.843	0.946	0.810	0.897	0.798	0.885	0.927

표 8. 시나리오 상황대처 문항의 요인부하량

시나리오 1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시나리오 7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0.730	0.828	0.855	0.903	0.856	0.784	0.896	0.879	0.784	0.791

그 결과, CFI값은 .954, TLI값은 .950으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 적합도 수준이 양호하였으나 RMSEA값은 .077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der, 1995). 표 7과 표 8에 제시된 상황지각과 상황대처의 확정된 시나리오의 요인부하량은 모든 문항에서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상황이 중복되는 시나리오 중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을 최종 삭제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식 질문지에서 확인하는 성적 상황지각 및 상황대처는 전체 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은 5개의 시나리오와 개별 하위문항 4문항씩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이들 내용 중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상반되는 문항은 역채점한 뒤 합산하여 20~10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척도 간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는 서로 상관이 유의하여 척도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지식은 성의식 및 성태도와 .48( $p<.001$ ), 성적 자기주장과 .21( $p<.001$ ), 시나리오 척도와 .20( $p<.001$ )의 상관을 보였고, 성의식 및 성태도는 성적 자기주장과 .50( $p<.001$ ), 시나리오 척도와 .45( $p<.001$ )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적 자기주장은 시나리오 척도와의

표 9. 개발된 척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1. 성지식	-			
2. 성의식 및 성태도	.48***	-		
3. 성적 자기주장	.21***	.50***	-	
4. 시나리오	.20***	.45***	.57***	-

\*\*\* $p<.001$ .

상관이 .57( $p < .001$ )로 가장 높았다.

전체 점수 기술통계

전체 점수의 연령별 척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성지식 척도는  $p < .05$  수준에서 14세와 나머지 연령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과 시나리오 문항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추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비교한 값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t-test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가 응답하여 평균 연령이 높은 온라인 응답자(평균 연령 16.46세)의 성지식 점수가 중학생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오프라인 응답자(평균 연령 14.42)의 성지식 점수에 비해 높은 반면( $t = 6.156, p = .000$ ), 자기보고식 문항과 시나리오 문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 = .894, p = .371$ ). 이를 볼 때, 성지식 영역의 경우 특정 연령 이후 유의하게 획득되는 반면, 일반적인 수준의 성적 의사결정과 상황 판단 능력은 초기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

향을 띠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연령별 표집 집단의 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은 점과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취약대상의 실제 결과와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가 주요한 쟁점에 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집을 통해 문항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자기보고식 척도와 더불어 개인의 자발적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성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인식과 대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시나리오형 문항을 개발하여 성적인 의사결정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자 하였다(Boni-Saenz, 2016). 이를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선행

표 10. 척도의 전체 연령별 평균(표준편차)

연령 (명)	척도 성지식	자기보고식 문항		시나리오 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14세 (90명)	10.68(2.10)	52.88(4.31)	45.29(4.75)	94.89(6.99)
15세 (128명)	11.38(1.94)	53.41(4.18)	45.13(4.30)	94.84(6.66)
16세 (52명)	11.73(1.50)	54.42(4.60)	46.04(4.49)	96.12(5.54)
17세 (78명)	11.96(1.30)	54.05(3.90)	44.26(5.50)	94.59(7.28)
18세 (122명)	11.74(1.80)	53.17(5.24)	44.52(5.28)	94.42(7.94)
전체 (470명)	11.48(1.85)	53.46(4.52)	44.96(4.89)	94.84(7.06)

연구와 기존에 개발된 유사 척도를 개관하고 관련 쟁점 사안을 검토하였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구성개념을 확립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 척도의 제작에 있어 자기보고식 척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의식, 태도와 더불어 성적 자기주장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의 성교육 자료와 기존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척도를 기반으로 하였다(교육부, 2017). 더하여 구체적인 성 피해 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지각 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시나리오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는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문용린 등, 2002)의 척도 구성을 참고로 하여 척도 개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개발 의도에 보다 부합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활용되고 문항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제외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 변화와 정체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자 자기결정의지와 문제해결능력, 적절한 판단능력 등을 습득하는 시기이기에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남미애, 2000)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940명의 전국 여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 여성 청소년 집단의 우선 표집연구를 통해 척도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평균, 표준분포를 확인하고, 하위집단에 해당되는 점수치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점수를 가늠하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조사 결과,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평가

척도의 하위 검사인 성지식 척도의 경우 너무 쉽거나 모호한 내용의 문항을 제거한 뒤 최종 13문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2요인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고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통합하여 각각 12문항과 10문항으로 결정되었다. 상황지각 및 상황대처 능력을 탐지하는 시나리오 척도는 제시된 시나리오 중 적합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루어진 5개의 시나리오와 하위 20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평가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35문항과 성 피해 유형별 상황 시나리오 5개에 따른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개발된 성적 자기결정권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전반적인 신뢰도가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 수가 많지 않음에도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각 척도 내 문항이 구성개념을 동질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일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검사와 재검사를 하여 비교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둘째, 리커트 척도 형식으로 구성된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와 5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문항은 구인타당도가 양호하거나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요 개념으로 정의한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2요

인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초기 개발 의도와 심리적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외에서 시나리오와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행동 변화의 정도와 함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념과 유사한 관련 척도와와의 상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나리오 척도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무난하게 나타났다. 개별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상황지각과 상황대처에 대한 긍정진술문과 부정진술문의 부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요소의 요인부하량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통계적인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피해 유형별로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상황 인식과 대처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넷째,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평가 척도 연구 대상의 전체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결과치의 점수가 높은 쪽으로 치우친 부적 편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척도가 논의될 당시 성적 인식수준이 낮거나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여성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우선적으로는 일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전반적인 점수 분포를 확인하고 하위집단을 변별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문항을 쉽고 간결하게 제작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즉, 본 성적 자기결정권 척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준 이상의 신체적·지적 발달 수준을 이룬 중·고등학생에게는 다소 쉬운 문항일

수 있으며, 평균적인 성적 인식수준을 지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를 변별해내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향후 본 척도를 활용할 때에는 각 척도별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등급화한 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의 정도를 판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과 시나리오척도에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을 낸 뒤, 전체 표집에서 점수 분포의 백분율 산정을 통해 구간점수를 나누어 개인의 전반적인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표준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점수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별 판단과 해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성적 자기결정권 평가 척도 개발 연구의 함의는 표준화된 성적 자기결정능력 평가 도구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성적 자기결정능력 관련 척도의 제작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제안하였으며, 개별 구성 개념에 대한 하위요소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유사 척도가 대부분 자기보고식 응답이었다는 특성에서 나아가,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와 함께 시나리오 형식을 도입하여 상황별 개인의 판단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분형 척도를 통해 성지식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 영역의 이론적 구조 정립과 하위영역별 구성요소의 재확인 및 문항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 척도를 제작하는 기초 연구로서 향후 이 척도를 표준화 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척도가 실제로 활용될 것으로 가정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검사 대상을 특정화하거나 한정 짓기 조심스러웠기에 우선적으로 일반 여성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여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성적인 인식수준이 미숙한 집단을 특정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특성별로 추가 연구 조사를 진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에 따른 하위집단을 정의하고, 이들의 점수 분포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재정의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분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성범죄 판례에서 검토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준 요건 및 수사단계에서의 평가 자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본 척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분하는 단일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연구가 가능해지고 한층 더 향상된 척도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뜻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현재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박혜진 2009; 장응혁, 2016), 피해자 중심의 평가 척도 사용이 필요하다. 피해경험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얻지 않도록 신중하게 척도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한 뒤 척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내적으로 우울과 무기력, 혼동과 불안 상태에 있을 수 있고, 회피나 정서 표현의 장애 등의 행동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대응기제와 생존전략을 지닐 수 있음을 알고(이윤호, 이금형, 2007) 이에 대한 평가자의 심도 깊은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척도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들에게 활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단순한 표현과 문장으로 제작했으나, 문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고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지녔거나 심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과정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척도의 후반부에 위치한 시나리오식 문항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본래의 제작 의도는 상황판단형 검사로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고 대상자의 상황지각과 상황대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함이나, 몇몇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심리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피해 상황 이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또는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행동·진술분석 등의 전문 인력과 제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과정을 통한 평가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고등학교 성교육 학생용 워크북.
- 교육부 (2017). 중학교 성교육 학생용 워크북.
- 교육부 (2017). 초등학교 성교육 학생용 워크북.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영애, 최주연, 최윤경 (2016). 한국판 배우자 학대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253-273.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 2(2), 171-183.
- 김재윤 (2009).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58(2), 253-278.
- 김혜원 (2003).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09-328.
- 남미애 (2002).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21(2), 127-151.
- 대검찰청 (2019). 대검찰청 범죄분석
- 문용린, 문미희, 곽윤정, 김민강, 유경재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편]: 국가인권위원회.
- 박광배 (2000).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결정 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상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박영숙 (2001).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259-278.
- 박영숙, 전영민 (2002).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91-909.
- 박혜진 (2009).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21(3), 229-252.
- 선미경, 이도균, 조경덕 (2019). 성적의사결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2), 331-339.
-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송은주, 김지현 (2017). 성동기 척도 타당화 연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인간이해, 38(2), 165-179.
- 옥도진 (2018).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478, 29-44.
- 이선경, 이윤정 (201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연인관계 만족도와 한국적 성적 자기주장성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8(1), 13-21.
- 이열, 김성돈 (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논총, 34(2), 401-427.
- 이윤호, 이금형 (2007).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2), 185-217.
- 이은진 (2015).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427-441.
- 이지연, 이은설 (2006).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7(1), 47-62.
- 장순복 (2002).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106-115.
- 장응혁 (2016).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송이 (2017). 이성교제 시 여대생의 성 의사소통 유형. 주관성연구, 38, 121-144.
- 정진아, 전해정, 천성문 (2018). 대학생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치료연

- 구, 10(2), 279-296.
- 정춘아, 주용국 (2017).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과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9(2), 405-418.
- 채규만, 정민철 (2004). 한국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6.
- 최영임, 장희숙 (2006).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77-91.
- 최종순 (2016).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oni-Saenz, A. A. (2016). Discussing and assessing capacity for sexual consent. *Psychiatric Times*, 33(7), 1-3.
- Cooper, M. L., Shapiro, C. M., & Powers, A. M. (1998). Motivations for sex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fun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28-1558.
- Hickman, S. E., & Muehlenhard, C. L. (1999). By the semi mystical appearance of a condom: How young women and men communicate sexual consent in heterosexual situa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36(3), 258-272.
- Hu, L. T., & Bentler, P. M. (1995). Evaluation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76-99). Newbury Park, CA: Sage.
- Humphreys, T. P., & Brousseau, M. M. (2010). The sexual consent scale-revised: development, reliability, and preliminary validity. *Journal of Sex Research*, 47(5), 420-428.
- Jozkowski, K. N., & Peterson, Z. D. (2014). Assess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ceptions of the consent to sex scal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1(6), 632-645.
- Loshek, E., & Terrell, H. K. (2015).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Assertiveness Questionnaire (SAQ): A comprehensive measure of sexual assertiveness for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2(9), 1017-1027.
- Lyden, M. (2007). Assessment of sexual consent capac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5(1), 3-20.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 Burkholder, G. J.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a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90-804.
- Reiss, I. L. (1964). The scaling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6, 199-198.
- Stavis, P. & Walker-Hirsch L. W. (1999). Consent to sexual activity. In J. L. Sullivan, R. D. Dinerstein, S. S. Herr, J. L. O'Sullivan(Eds.). *A guide to consent*(pp. 57-67).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차원고접수 : 2020. 04. 10.

심사통과접수 : 2020. 05. 25.

최종원고접수 : 2020. 06. 25.

## Development of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bility Scale for Woman: A Preliminary Study

Neul Ha<sup>1)</sup>                      So-Yeon Kim<sup>1)</sup>                      Hyeon-Ki Hong<sup>2)</sup>  
Yeon-Joo Son<sup>1)</sup>                      Ki-pyoung Kim<sup>2)</sup>                      Myoung-Ho Hyun<sup>1)</sup>  
Chung-Ang University<sup>1)</sup>                      National Forensic Service<sup>2)</sup>

Sexual self-determination refers to the right to freely decide one's sexual life and not to be illegally violated.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 to evaluate the ability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physically and mentally immature adolescents and adults and vulnerabl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or mental disabilities.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develop a women's tool that can be more appropriately utilized for wome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ymposiums,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defined as the individual's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sexual self-assertion, situational perception and coping ability. Preliminary items were constructed by verifying content validity and facial validity. Subjects were 940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student, the model fit was confirm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nfirmed sexual knowledge(13 items),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12 items), sexual self-assertiveness(10 items), and 5 scenarios (20 items, situational judgement test) to identify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and abil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 in specific sexual situations. As a result of construct validity test, each scale is good or acceptable fit. It is a structure that can respond to self-report and scenario questions simultaneously, which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sexual self-determination ability in a multi-dimensional sca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self-determination ability, Development of scale, preliminary study